



문태영(15번)을 앞세운 모비스는 LG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페인트 존을 장악하고 있다. LG는 활발한 외곽포로 맞서고 있다. 3일 창원체육관에서 벌어진 2차전도 이런 양상으로 펼쳐졌다. 촬영 | 뉴스사

외곽 장악 LG, 골밑 점령 모비스...어라?

바스켓볼 브레이크 | 정규리그와 정반대 양상 보인 챔피언결정전

LG, 3차전까지 3점슛 성공률 53.6% 압도
모비스는 골밑에서 펄펄...리바운드도 우세



2013~2014 KB 국민카드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7전4승제-이하 챔피언결정전에서 명승부를 연출하고 있는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는 정규리그에서도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쳤다. 40승14패의 동률로 마쳤고, 상대전적도 3승3패로 같았다. 6차례의 맞대결 전체 득실에서 앞선 LG가 정

규리그 1위, 모비스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흥미로운 점은 정규리그 맞대결과 챔피언전 1~3차전의 경기 내용이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정규리그에선 LG가 2점슛과 골밑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챔피언결정전에서는 모비스가 골밑을 점령하고 있다. 반면 정규리그 3점슛 성공률에선 모비스가 앞섰지만, 챔피언결정전 LG의 3점포가 더 활발하게 터지고 있다.

●3점포로 날개를 단 LG

LG가 챔피언전 3차전까지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3점슛 덕분이었

다. LG는 문태종과 박래훈을 앞세워 3차전까지 53.6%의 엄청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다. 3차전에선 3점슛 성공률이 70%에 달했다. 반면 모비스의 외곽포는 챔피언전 들어 신통치 않다. LG와의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모비스가 기록한 3점슛 성공률은 40.5%였다. 그러나 챔피언결정전 3점슛 성공률이 고작 20.6%에 그치고 있다. 2차전에선 9개를 시도해 단 1개만 넣는 데 그쳤고, 3차전에선 3쿼터까지 단 1개의 3점슛도 적중시키지 못했다. 노마크 찬스에서 3점슛 적중률이 떨어지고

●2점 플레이로 승부 거는 모비스

모비스는 이번 챔피언결정에서 2점 플레이로

승부를 걸고 있다. 모비스는 챔피언결정 경기당 평균 28.7개의 2점슛을 성공시켰다. 정규리그 맞대결에선 경기당 23.5개 적중에 그쳤던 2점슛이 5개 이상 늘어난 것이다. 페인트 존(공격자 3초 구역)과 미들라인에서 상대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리바운드에서도 LG를 압도하고 있다. 챔피언결정 경기당 평균 리바운드에서 모비스는 35.0개, LG는 27.3개를 기록했다. 특히 모비스는 미스매치를 활용해 공격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며 골밑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정규리그 맞대결 경기당 평균 리바운드는 모비스 33.7개, LG 32.3개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울산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정부 나서야”

전병관회장 “문체부의 이해관계 조정 필요”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회장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반면 국민생활체육회는 하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통합에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문제는 ‘비정상적 정상화’를 모토로 내건 정부의 체육 개혁정책과 맞물려 현재 한국체육계의 큰 화두

중 하나다. 올해 초 양 단체가 2017년 1월을 시한으로 통합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교환할 정도로 통합 논의는 한때 급물살을 탔지만, 현재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미지근한 태도로 인해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한국체육학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병관(사진)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는 6일 “두 단체의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한 국가 내에 체육 관련 복수의 대표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



다, 전국체전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로 시도체육회를 비롯한 대한체육회의 지방행정조직이 무너진 형편인데도 굳이 전국의 군 단위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중복된 체육 행정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는 애기였다.

현재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과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두 단체의 현실에 정통한 전 회장은 체육발전위원회 통합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양측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누구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워낙 방대한 조직이라 전체 구

성원들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며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합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통합 및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회장은 “장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양 단체의 통합을 이끌고, 공정한 사람에게 통합추진 위원장을 맡겨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야 한다”며 “양 단체의 통합을 단순 통합을 넘어 한국체육의 도약 계기로 삼기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레슬링 정지현, 인천아시안게임 각오



마지막 될지 모르는 태극마크 다 내려놓고 편하게 즐기겠다

2004아테네올림픽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급 금메달리스트 정지현(31·울산 남구청·사진)은 한국레슬링의 터줏대감이다. 2002년 만 19세에 태릉선수촌에 입성한 이후 10년 넘게 그레코로만형의 대표주자로 활약해왔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제레슬링연맹(FILA)은 2013년 12월 체급 조정을 결정했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선 남자 그레코로만형 71kg급과 80kg급, 남자 자유형 61kg급과 70kg급 등 4개 체급이 신설됐다. 대한레슬링협회는 3월말 추주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회장기 전국대회에서 인천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추가로 선발했다. 정지현은 이 대회 남자 그레코로만형 71kg급에서 우승하며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정지현은 아시안게임과 유독 인연이 없었다. 2002년 부산대회에선 입상에 실패했고, 2006년 도하대회 때는 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 2010년 광주대회에선 아내 정지연 씨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태명을 ‘아금(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고 지으며 우승을 노렸지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2012런던올림픽을 앞두고도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가졌다. 이번에는 ‘을금(올림픽 금메달)’이란 태명을 붙였지만, 세계 정상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아금’이 서현(딸)과 ‘을금’이 우현(아들)은 어느덧 우리나라로 4세, 3세가 됐다. 아이들의 특별한 태명은 큰 대회를 앞두고 절실했던 ‘아빠’의 마음을 대변한다. 그만큼 부담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정지현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동안 금메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매달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았다.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이번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즐겨보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2002년 생애 첫 아시안게임 당시 19세였던 옛된 청년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즐거이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세월의 깨달음을, 정지현은 이번 대회에서 펼쳐보일 수 있을까.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if

업종전환, 좀더 저렴한 창업을 원하십니까?

-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아직도, 신개념 갈매기살·막창전문점 ‘진서방곱이네’를 모르십니까?

- ☑ 갈매기살, 막창의 퓨전화로 차별화된 경쟁력
- ☑ 실전 교육 시스템과 매뉴얼의 표준화로 초보자도 손쉬운 운영
- ☑ 숯불직화 초벌구이로 기가막힌 맛의 비결!
- ☑ 튀는 입소문으로 동네상권에서도 유명 맛집으로 변화
- ☑ 독특한 메뉴 구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어필
- ☑ 양념육, 소스 공급으로 물류 안전성, 점주 편리성 극대화
- ☑ 계절과 유행을 타지않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메뉴
- ☑ 여성내점을 60% 이상의 인기있는 신개념 구이전문점
- ☑ 매콤한 맛, 달콤한 맛, 고소한 맛.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는 매력

www.jinsubang.com

진서방곱이네갈매기는...

1. **차별화된 전문점**
갈매기살, 한우곱창, 돼지막창 등 특수한 부위 취급으로 단골고객 확보가 용이한 전문 막창포차!
2. **입이 즐거운 뛰어난 맛**
사골 선지애장국 무한리필 서비스와 13가지 천연양념으로 숙성한 원육으로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별미!
3. **독특한 조리비법**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수 숯불화덕 장치를 사용하여 직화향 가득하게 구워낸 별난 구이비법!


숯불갈매기살


한우소곱창


숯불묵살


막창, 갈매기살의 새로운 무한변신!


-신개념 퓨전 막창포차-

이미 먼저 진서방곱이네를 선택하시고 대학행진을 함께하고 계신 점주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 대한민국 최고의 프랜차이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제이앤비즈 가맹사업부 02)333-6682